제일 중차대한 과업

201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운영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가 겪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영원히 높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야영소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지시, 당정책에 민감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많은 정책적과업들가운데서 선후차를 갈라 당에서 제일
중시하고 사회주의본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고수하는데서 제일 중차대한
과업이 어느것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포착하고 거기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로 돌리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일깨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다시금 깊이 새기였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야말로 사회주의본태를 살리고 사회주의우월성을
과시하는 제일 중차대한 과업, 우리 당의 제일중대사임을.